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1호 [루게 제25600호] 주제 106 (2017)년 4월 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육군상장 윤동현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탱크들의 차단물극복능력과 타격능력을 확정하며 탱크병부대, 구분대들이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맞닥뜨리는 자연계선과 차단물들을 신속히 극복하고 높은 기동속도를 보장하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투행동방법을 숙명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에는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탱크중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대련합부대별 순서대로 출발한 탱크들이 3.6km의 주로에 설치한 8개 계선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동목표와 부동목표를 사격한 다음 운전점수와 사격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탱크병들의 가슴가슴은 극악무도한 침략의 무리들을 멸적의 무서움으로 바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짓겨버리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야말 전투적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출발구멍이 내리자 원우격멸의 함성인양 무서워할까의 동음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적개성이 만장약된 무적의 철마들이 성난 호랑이마냥 질풍처럼 내달리었다.

여울, 꿩도다리, 산악경사, 반탱크족, 반탱크벽, 산지전호, 산지도로 등 실전을 가상하여 설치한 각종 장애물들을 단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혼연이자 전투이며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혼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아무리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혼연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인민군장병들이 혼연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한자래한자래의 격전과 같이 여기고 혼연의 불도그니속에서 자기 부대, 구분대의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다지는 데 총력을 집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현대전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당의 혼연혁명 5대방침을 중심고리, 종자로 틀어쥐고 혼연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에 참가한 탱크병들을 뭉소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에서 우수한 단위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 1기 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탱크병들이 탱크병싸움준비를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소불의로 적진을 짓밟개 버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경기대회참가자들은 불켜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맥무산 혼연열공속에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해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극복하면서 돌진하는 탱크들의 기상은 백두산번개였고 번속강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명중포탄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의 몸뚱아리를 가차없이 불태워버리는 복수의 용암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노도저 전진하는 무적의 철마들을 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탱크들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가파로운 언덕도 날아 넘다싶이 하며 최대속도로 달리는데 정말 놀만 하다고, 역시 탱크는 우리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소주먹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기대회는 우리에게 대한 남강도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분별없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 악착한 제재, 압박의 도수가 강화될수록,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우격멸의 총검을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철승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기대회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제966대련합부대, 제567대련합부대, 제313대련합부대, 제233대련합부대, 제604대련합부대, 제593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제337대련합부대, 제324대련합부대, 제526대련합부대, 제549대련합부대, 제264대련합부대, 제757대련합부대, 제671대련합부대 순위로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를 통하여 우리 탱크병들이 무적의 철마를 몰고 남반부해방작전지대를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며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전찌매기싸움군대로 역세게 준비되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탱크병경기대회-2017》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최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혼연길, 혼연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혼연하고 또 혼연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제966대련합부대 최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혼연길, 혼연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혼연하고 또 혼연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제966대련합부대 최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혼연길, 혼연혁명의 길이 조국통일의 열병광장과 잇닿아있다는 확고한 판점을 가지고 순간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쫓아가며 혼연하고 또 혼연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보장구분대와의 협동밀에 차단물극복훈련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시격술을 높이기 위한데 모를 막고 만능준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방식을 새롭게 할데 대한 문제 등 탱크병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